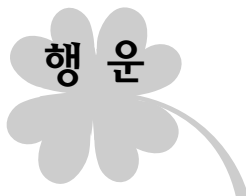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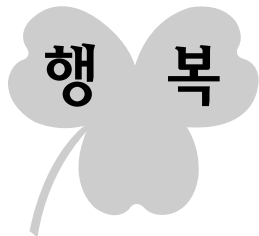


대구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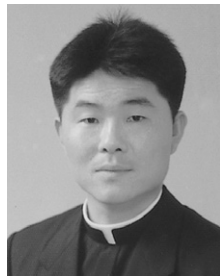
사순 제4주일

2011. 4. 3.(가톨릭) | 제1722호 |

주일의말씀



이영재 대건안드레아 신부
윤일본당 주임



봄을 맞아 냉이를 캐려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클로버 군락을 만났습니다. 네잎클로버를 찾아 한참을 해매다 일어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아뿔싸! 세 잎 클로버를 죄다 짓밟아 놓았습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입니다. 우리는 네잎클로버를 따기 위해 수많은 세 잎 클로버를 짓밟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세 잎 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행복' 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수많은 행복 가운데서 특별한 행운만 찾고 있는 건 아닌지요!

성전의 경내에서 구걸하며 일상을 살아온 한 태생 소경인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참 특이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하혈하는 여인(마태9,20이하), 예리코의 두 소경(마태21,29이하), 세리자캐오(루카19,1이하)와 같은 간절한 믿음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도, 치유에 대한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를 보셨고, 그에 대해 제자들이 의문을 제기했고, 태생 소경이 세상 빛을 보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는 태생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경내에서 구걸을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라고 대답하는 지혜롭고 사랑 가득한 부모님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일상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를 통해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십니다." (요한9,4)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내와 남편, 사랑스런 아이들, 부모님과 일가친지들, 내가 소속된 본당 단체의 형제자매님들. 이들과의 사랑 가득한 일상 안에서 행복을 찾아봅시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에 하느님께서서는 덤으로 더 큰 축복과 행운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 멀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9,39)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5,3)



천주교 대구대교구 2차 시노드 개막미사

“새 시대, 새 복음화” 새 시대 복음화를 위한 전망과 성숙한 교회 공동체 실현

◆ 일시 2011년 4월 8일(금) 저녁 7:30 ◆ 장소 계산주교좌성당 ◆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



22. 교구 25주년, 50주년 기념대회와 70주년 기념 성체대회

문화홍보실

우리 교구에서 처음 교구 설정을 기념한 것은 25주년이 되던 해인 1936년이었습니다. 이 해 6월 11일, 대구교구 설정 25주년과 교구장 드망즈 주교님의 서품 은경축 기념대회가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계산주교좌성당에서 감사미사를 봉헌한 후, 주교좌성당 앞에 커다란 화강암 십자가상을 세워 축성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25년이 지난 1961년, 대구교구 5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교구장 서정길 주교님과 왜관 감목대리 비테를리 몬시뇰이 함께 감사미사를 봉헌한 후, 1만여 명에 달하는 신자들이 행렬을 지어 역전 광장까지 성체거동을 했습니다. 교황기와 태극기, 그리고 십자가를 앞세운 교우들의 행렬에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세계 각국의 교우들과 주한 미군이 함께 했고, 행렬의 길이가 2킬로미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통을 거쳐 행렬한 교우들은 대구역 광장의 가설제대에서 성체강복을 받았습니다.

1981년 6월 6일에는 교구 70주년 기념 성체대회가 열렸습니다. 보통은 75주년을 기념하는데, 이때에는 한국천주교회 200주년을 3년 앞둔 시기여서 그 준비를 겸하여 7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3만여 명의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정길 대주교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강론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준비해야 할 것은 신앙 선열의 후손된 명예스런 본분을 다하고 후손에게 선조의 피와 용맹의 유산, 숭고한 정신의 유산, 영원한 광명과 진리의 유산을 넘겨줄 능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우리 신앙생활에 일대 혁명이 없으면, 우리 후손들과 우리 민족은 신앙과 진리에 무감각해지고 말 것입니다. ... 앞으로 교회의 중심인 성체를 한층 더 열렬히 공경하고 자주 영성체하며 조배하는 신앙생활을 하여, 우리 모두가 3년 후에는 자부할 만한 제2의 신앙 선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이제 교구 100주년을 지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 담긴 주님 은총의 무게와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이 중요할 것입니다. 행사와 사업이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 담아 주님께 봉헌할 알맹이는 우리가 반드시 제2의 신앙 선열이 되어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결심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사순 제4주일

입당성가

119 주님은 우리 위해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봉헌성가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영성체송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뒤
이르셨네. 가서 씻고 보아라. 그
리고 하느님을 믿어라.

파견성가

121 한 많은 슬픔에

영성의 향기

:: 주변에 착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거나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금방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하게 되는 길이 아니라 고립되는 길입니다. 모나고 울퉁불퉁한 부분이 깎여 나가고 다듬어져 원만하게 되려면 부딪히고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와도 마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숙할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혼자 이룰 수 없고 다른 사람들, 특히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내 마음에 맞고 원만한 사람들만 있기를 바라는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신자인 유다를 3년이나 데리고 다니셨고, 함께 음식을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셨고, 유다가 당신을 팔아넘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인간관계입니다. 여기에 이르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중 배신자 유다처럼 그렇게 악독한 인간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죄하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연을 잘 모르지 않습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도망가고 싶을 때



바바리아의 왕이었던 헨리 3세가 정치판의 권모술수에 지치고 신물이 나서 고명한 수도자이며 수도원장이었던 리카르도를 찾아가 수도자가 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리카르도 원장은 왕에게 물었습니다. “임금님, 수도자란 순명을 해야 하는데, 왕으로 계시다가 순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헨리 왕은 수도원장에게 “이왕 수도자가 되려고 마음먹었으니 해야지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리카르도 원장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임금님, 이제 순명하십시오. 지금 당장 궁궐로 돌아가서 하느님께서 맡기신 백성과 나라를 돌보십시오.” 헨리 3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순종함으로써 다스리는 법을 배운 사람.”

- 율려온 글입니다 -

모임 / 행사

폐제기도회

일시: 4.9(토) 20:00, 삼덕젊은이성당

교구100주년 기념 생명사랑나눔 대축제

일시: 5.7(토), 8(일) 양일간

장소: 신학대학운동장, 성김대건기념관

내용: 바자회, 사회복지박람회, 다문화축제
바자회 참여 및 판매물품 기증요망

문의: 생명사랑나눔 운동본부, 253-9991

성소 / 피정

칠곡 경대병원 원목실 축복미사

일시: 4.9(토) 10:30, 칠곡 경대병원 원목실

주례: 총대리 이용길(요한) 신부

문의: 250-3085

푸른 군대 회원을 위한 사순 피정

일시: 4.11(월) 10:00~17:00, 푸르실료교육관 성당

강사: 최봉도 신부, 선착순 150명

회비: 1만원(교재비, 점심식사 포함)

문의: (010)2635-0534 / (010)2819-8126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기간: 5.7(토) ~ 6.25(토), 총 8회

일시: 매주 토요일, 14:30 ~ 저녁기도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지도: 허성준(가브리엘) 신부(OSB)

문의: (054)970-2000, 수강료: 11만원

성모영보수녀회 성소모임

장소: 관촌본원

문의: 정 베로니카 수녀, (010)8920-9423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4기 추가모집

접수: 3.26~ , 미국유학시 학점 인정

1년 내 석사학위, 무료어학연수 기회
신부님추천 장학혜택, 자녀동반유학
영어회화 전담강사 전형대비

문의: 526-0111(<http://tesol.cu.ac.kr>)

시편성가(연수)김정선수녀, 발성법(박재연)회비1만원

일시: 4.3(일) 15:00, 가톨릭음악원(255-4847)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취득과정 교육설명회

일시: 4.4(월) 10:00~12: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성모당 내)

대상: 노인복지(요양)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문의: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255-7222

환경위원회 명상체조반 회원모집

개강: 4.5(화) 2개월 코스

일시: 화, 금 14:00~16:00

수강료: 2개월 6만원

문의: (010)3015-6656 / 253-3655

말씀 선포의 자신감을 갖기 위한

“제1기 로고스 스피치 학교”

일시: 4.9~5.28(매주 토) 13:30~17:30, 6주 과정

장소: 교구청 교육원 다동 1층, 회비: 6만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지성인을 위한 신앙 강좌

주제: 성주간 전례의 역사적 기원과 영성적 의미

일시: 4.16(토) 10:00 ~ 12:30, 마감: 4.13(수)

장소: 남산동 신학대학 (참가비: 5천원, 점심포함)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5월 강좌: 주일과 우리의 신앙(김정우 요한 신부)

제44기 선교대학 개강

주제: 찾아가는 선교

일시: 4.16(토) 10:00~16:00

장소: 계산문화관 1층, 선착순 무료 신청

지도: 이관석 신부

주관: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2박3일 성령세미나

일시: 5.6(금) 9:00 ~ 8(일) 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 (고령 월막과정의집)

대상: 일반

문의: (054)954-0951, 신청비: 12만원

청소년 · 청년사목 연수 CAFE 2011

일시: 6.27(월) ~ 7.1(금), 4박5일

장소: 의정부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대상: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 등 130명

강사: 조재연 신부, 구스만텍스 신부

문의: 햇살청소년사목센터, (02)744-0840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1년 대상자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1차, 암 검진 (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부활위문품

군중후원회에서 부활절을 맞아 군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4.3(일)까지, 접수: 본당사무실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

(훈련병, 교육병, 하사관, 장교 제외)

천주교 군종교구 심벌마크 공모

기간: 3.20(일)~6.12(일)

방법: AI파일, 설명글 (이름, 연락처 표기)

접수: gunjong@catholic.or.kr (충당금 450만원)

가톨릭문화관 사무실임대(1층10평, 16평)

문의: 사무장 (011)9579-7382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밀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4월 4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미사	4월 4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집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4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한국SOS어린이마음 후원자 가정용 위한 월례미사	4월 6일(수) 오전 11시 30분	한국SOS어린이마음 2층강당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4일(월) 오전 11시	영곡성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4월 7일(목) 오후 2시	성모당
푸르실료스파 월례미사	4월 4일(월) 오후 7시 30분	푸르실료교육관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오썸 결혼 이야기

(초혼, 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 070-8827-6207

부산 - 051)817-3885~8

서울 -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대표 김순자(마리아)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 전문의, 원장: 정 순우 (요 섹)

범여대(가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여대학을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여역 8번 출구)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상담소

474-0025, 476-9275

가톨릭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정귀선 (호노리아)

송월타올

인쇄무료

이영용(베드로), 심옥섭(미카엘라)

☎ 010-9431-3276, 629-0745

가톨릭문화관 1층

강북 행복을 심는 치과

질곡 화성3차아파트와

화성센터빌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 323-2875 / 323-2842

원장 이상철(베드로), 조진석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 (안토니오) 011-503-2404

서정의 피부과

피부 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

의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위치: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데레사소비엔타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 야채, 선어, 정육

*신선, 가공식품, 공산품, 생필품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맞은편)

대표이사 장영 일 (그리산도)신부